

협소고공간

small space RICH STORY

狹小

도시의 바탕을 이루는 공간들은 여전히 5층 이하의 건물이다. 그 주변을 형성하는 이면도로에 작지만 진부함을 흔드는 공간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대규모 개발로 만들어진 복합공간이 문화의 깊이를 축적할 여유를 주지 않는 데 반해, 사람들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생성된 이 거리는 휴먼스케일의 주거, 상업, 문화가 공존한 지역인 경우가 다수이다. 마천루로 연상되는 테헤란로, 홍대 앞의 변화한 상점가, 가로수 길의 준비한 패션숍을 벗어나 이웃한 길들이 주목받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골목골목을 누비며 만나는 집과 작은 상점들이 축적된 무형의 문화로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와 이야기를 탄생시키고,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을 만든다. 여기 소개한 협소 공간들은 그런 생활 밀착 공간에 대한 관찰을 담은 기록이다. 보편적인 현실의 공간, 길모퉁이에 자리한 한 뼘 크기의 상점이나 식당은 그래서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또, 길모퉁이의 뜻하지 않은 발견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걷고 또 걷게 될지도 모른다. 취재 편집부



Aimé Pâtisserie 에메 빠띠스리

설계 Lukstudio / Christina Luk, Mavis Li, Wesley Shu, Scott Baker
www.lukstudiodesign.com

위치 Shanghai
면적 63m²

사진 LOTAN Architectural Photography / Peter Dixie

제과 브랜드 Aimé Pâtisserie가 상하이 화이하이루(淮海路)에 플래그십매장을 냈다. 선정된 부지는 익숙한 커피와 도넛 가맹점들이 인접해 있고, 바로 앞에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길 건너에는 최근 대형 쇼핑몰이 들어섰다. 이 매장 디자인의 과제는 혼란스러운 주변에서 쉽게 눈에 띄고 세련된 분위기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이었고, 디자이너는 이 매장 전체에 화이트를 입히는 것을 디자인 전략으로 정했다.

디자이너는 선물상자의 포장 형태를 가지고 매장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해석하였다. 레이어를 이용한 디자인의 아이디어는, 반원의 반투명한 종이를 하나하나 들어 올리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색깔의 마카롱을 발견할 때 뚜렷해진다. 반원의 연속된 열림은 매장 전면 위쪽 디자인의 형태에서도 나타나고, 반원 네 개의 반투명한 레이어로 만들어진 유리창 디스플레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게끔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매장 전면을 지나면, L자 형의 레이아웃이 바 스톨이 놓인 로비와 그 뒤쪽의 진열장 겸 계산대, 두 영역으로 나누어 이어진다. 바 스톨 영역은 낮은 천장으로 인해 진열장 겸 계산대 영역의 시야를 내리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호기심을 사로잡는 조명명이 설치된 벽체를 감싸고 있다. 안으로 이어지는 벽면에는 마카롱과 다른 제품들이 일사불란하게 진열된 9m 길이의 진열장이 놓여있다. 열린 상태가 제각각인 채 차곡차곡 쌓인 선물상자로 형성된 조명 달린 벽체는 다양하고도 기발한 패턴이 이어지는 천장으로 시선을 향하게 한다. 다재다능하게 활용되는 이 모듈러 시스템은 필요에 따라 선반이 되기도 하고, 천장에서는 스포트라이트, 스피커, 안정장치를 위한 개구부가 되기도 한다. 입구 왼쪽 벽체에 알루미늄 띠를 감고 구부려서 Aimé Pâtisserie라는 글자를 만들어 붙였는데, 이 글자에 비친 조명에 의한 그림자가 예술적인 느낌으로 다가온다. 흰색의 선물상자 같은 이 공간은 입을 달콤하게 해 주는 만큼 눈도 즐겁게 해 주고 있다.



